

## Korea Wine Challenge Great Contributors

지난해 Korea Wine Challenge(KWC)에 크게 이바지한 와인 생산자 가운데 이번에는 모두 9종의 와인을 출품한 4곳의 생산자(와이너리)를 함께 신는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1 2 3 4

1. Bottega Il Vino Dei Poeti Brunello di Montalcino 수입사 더바인컴퍼니
2. Casas del Toqui Court Rollan Pater Cabernet Sauvignon 수입사 BK트레이딩
3. Plaimont Echo Indigo White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4. Zonte's Footstep Baron Von Nemesis 미수입

### Bottega S.p.A

지난해 처음으로 KWC에 출품한 이탈리아 와인 생산자이다. 베이스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토, 오랜 기간 포도 경작과 와인 양조를 이어온 와인 명가이다. 현재 베네토, 발폴리첼라, 트레비소 등지의 좋은 포도로 와인을 빚어 132개국에 내보내고 있다. 이 집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사는 더바인컴퍼니, 매우 건실한 수입사이다. 특기할 사안은 지난해 Bottega의 와인이 'Italia Best Red'의 영예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이다.

### Casa del Toqui

두 번째 기여자는 칠레의 Casa del Toqui이다. 여느 칠레의 와인 생산자와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지난해를 위시해 몇 차례 KWC의 문을 노크한 일이 있다. 1994년 프랑스 보르도의 샤토 라로즈 트랑토돈과 손을 잡고 매우 수준 높은 질의 와인을 내고 있다. 또한 <Wine Review> 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한국 소비자들한테 낯설지 않은 좋은 이미지의 생산자이다. 튼실한 수입업체로 알려진 BK트레이딩에서 들여오고 있다. 2019년 KWC에서 gold와 silver medal을 7종이나 수상했다.

### Domaine Plaimont

프랑스 남서부 지방 가스끄뉴 일대의 세 마을, 즉 플레장스(Plaisance), 에낭(Aignan), 생몽(Saint Mont)의 포도생산자 1,100명이 1979년 설립한 조합 형태의 와이너리이다. 근래 프랑스에서 뜨는 와인은 남부 지방과 서남부 지방의 것이다. 페루아가 훌륭한 와인의 질이 한국 소비자한테 아주 잘 맞는 와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와인을 들여오는 비노파라다이스는 모회사가 파라다이스 그룹. 튼실한 자금력으로 서남부 지방의 와인을 과감히 들여오고 있다. 와인의 질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Plaimont Echo Indigo White' 와인이 silver medal을 수상했다.

### Zonte's Footstep

호주의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합심해 만든 와이너리이다. 이들은 바로사, 맥라렌 베일, 랑크 크릭, 애들레이드 등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로서 새로이 빼어난 와인을 빚고자 만들어진 생산자이다. 2018년에도 참가해 와인의 질감이 호주 와인으로서 아주 정감이 가고 신선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다. 아직 미수입 상태. 매우 훌륭한 질의 와인이어서 과감히 수입사가 나오기를 추천한다. ㄴ

# PREMIUM WINE GLASS SHOWCASE

오는 4월, 프리미엄 와인글라스를 주제로 한 9종의 와인글라스가 쇼케이스에 선보일 예정이다.

장소 르 카바레 도산  
일시 2020년 4월 8일(수) 13:30~16:00  
대상 B2B2C 인플루언서, 미디어, 소물리에  
참여 브랜드 자페라노, 토요사사키  
(브랜드 시리즈 내 9개 와인글라스 참여 예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리미엄 글라스 테이스팅 쇼케이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SNS 인플루언서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8명, 쇼케이스 이후 SNS 포스팅 필수)  
문의 와인리뷰 마케팅팀 T. 02-394-7284